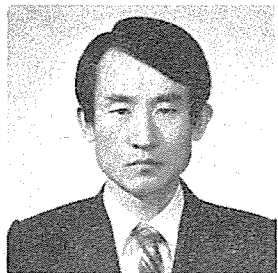


# 우리나라 都市建築의 現況

宋 英 燮

(弘益大學校都市計劃學科 教授)



## ◇ '60年代와 '80年代

필자가 대학을 졸업하던 '60년대와 비교하면, 약 20년가까운 세월이 흐른 오늘의 우리의 建築은 양적인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엄청나게 변화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갈만한 취직처는 10여개의 設計事務所와 建設會社에 불과했고, 麻浦에 처음 세워진 아파트團地는 신기하기만 했으며, 高層建物이래야 지금은 흔적도 없는 10층도 못되는 半島호텔정도였다. 이에 비해서 '80년대초인 오늘까지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년간 생산되는 建築面積이 몇십배로 늘어났든가, 서울에서만도 10층이상의 건물이 몇 백개가 된다는가, 또는 매년 대학의 건축과를 졸업하는 豫備建築士가 몇천명씩 된다는가 하는 따위를 일일이 통계숫자로 따져볼 필요는 없고, 南山위에 한번 올라가서 서울시를 내려다 보거나, 江邊道路를 달려 보면 된다. 이러한 변

화는 서울에만 국한된것이 아니고, 地方都市에서도 마찬가지로 느낄 수 있다. 프랑스 最高라고 자랑하는 빠리의 제일높은 건물보다도 더높은 60층빌딩도 우리손으로 세우고 있고, '60년대에는 허허벌판이던 곳이 현대식 아파트숲으로 변했고, 시내버스노선의 종점이었던 곳들이 都心地처럼 되어버렸다. 뿐만아니라 우리의 건설업체들이 대거 해외에 진출하여, 도시와 고속도로를 건설하며, 교량을 놓고 있다.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70년대의 高度成長의 결과로서, 건축계가 이와같은 양적성장을 이룩했고, 이에 따라 건축의 내용이나 生産過程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 글의 제목으로 주어진 都市建築과 관련하여 그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두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建築의 社會化現象이라 할 수 있겠다. 과거에는 건축은 별로 일반의 관심대상이 되지 못하고, 建築主個人이나, 또는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일부의 소수인에게 국한된 일로 인식되었다. 都市計劃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지 않아서, 헐고 새로 짓거나 뚫고 넓히는 일이 거의 없고, 허허벌판이 하루 아침에 무슨무슨團地로 결정되어 地價가 치솟는 일도 없고, 말뚝만 박아 놓아도 몇천만원씩 프리미엄이 붙는 일도 없었던 때에는, 建築은 建築主個人의 일일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정이 다르다. 都市計劃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현대화의 진통으로서, 건물들은 철새없이 헐리고, 또 신축되고 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내집, 내동네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원래의 住居機能보다는 財産增殖手段으로써의 기능이 더강하게된 아파트에 한번쯤 관심을 가져보지 않는 사람도 드물게 되었다. 내가 사는 동네나 일하는 곳에 커다란 환경변화를 초래할지도 모를 건축물이 들어설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근래에는 해외에 여행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또 텔레비전이 보급되어, 우리의 도시나 건축과 외국의 것들을 모든 사람이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이 建築은 이미 建築家와 建築主個人간의 일도 아니고, 어느 特殊集團만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게 되었

다. 이는 바꿔 말하면, 건축의 社會的 役割, 또는 중요성이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뜻이다.

다음으로는 건축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설계도 점차로 二元化되어가는 경향을 들 수 있겠다. 재래식 設計事務所가 설계를 전담하던 과거와는 달리, 대규모의 用役會社 또는 엔지니어링회사가 생겨서 각종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또 財閥級大企業들이 다투어 건설업계에 진출함에 따라, 자체내에서 設計를 해결하고 있다. 都市計劃이나 대규모의 團地計劃등은 이러한 용역회사가 담당하고, 일반 建築設計事務所는 주로 個別建物を 담당하고 있는데, 설계사무소중에서도 이름있는 몇몇개는 大企業의 社屋, 관공서 건물, 은행, 호텔, 무손회관이나 기념관, 고급주택등 소위 “作品”을 만들어내고, 일반 서민용건축인 연립주택, 고급아닌 보통주택, 길가의 3,4층짜리 보통건물들은 여타 군소 설계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70년대이후 사회전반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건축수요가 폭발하고, 이에따라 건축의 사회적 역할이 크게 부각된 반면, 건축이 전통적 개념의 建築家들의 손에서 점점 벗어나게 된것은 어떤면에서는 대단히 아이러니칼한 일이다.

## ◇ 都市와 建築

都市는 建築物에 의해서 구성된다. 건축설계가 벽체, 창, 바닥과 천정이나 지붕에 의해서 방이나 복도등의 内部空間을 만드는 일이라면, 都市設計는 건축물에 의해서, 길이나 廣場, 公園등의 外部空間, 즉 都市空間을 만드는 것이다. 좋은 건축물이란 内部空間, 바꿔 말하면 各室이 機能에 적합한 크기를 갖고, 또 이들이 합리적으로 배치되어 상호연관성을 가져야한다. 壁이나 窓등 각부분간의 比例關係나 마감재료, 室内裝飾도 잘되어 기능적이어야 하며, 그 안에서 살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는 外部空間, 즉 都市空間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都市에도 여러공간이 각기 그 기능에 맞게, 적절한

곳에 배치되고, 이들은 알맞는 통로에 의해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은 廣場일 수도 있고, 公園일 수도 있으며, 또는 停車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통로인 길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다니기 편리해야 하고,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 都市空間은 建築物이 세워지고 남은공간(void)이 아니다. 건축물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도시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화사드가 이러한 都市空間을 구성하는 壁面같은 구실을 한다. 이렇게 볼때 건축은 이미 개개 건축물의 아름다움이나 기능만으로는 별의미가 없고, 인근의 다른건축물 및 叢地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되며 건축물은 都市空間을 구성하는 많은 구성요소중의 하나일뿐이다.

르네상스시대에 건축은 繪畫, 彫刻을 포용하는 綜合藝術이었다. (실제로 당시의 유명한 건축가들은, 동시에 繪畫, 彫刻의 巨匠들이었다) 오늘날에도 많은 건축가들이 建築을 藝術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설계한 건물을 “作品”이라 부르고, 자신이 예술가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어느 저명한 건축가는 『건축이란... 태어난 사회에 두손모아 비쳐지는 인간의 가장 성스럽고 귀중한 創造物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60년대에 건축을 공부하던 학생과 마찬가지로, '80년대의 학생들도 대부분 건축을 예술로 생각하고 있다. 作家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오늘의 우리나라의 “藝術的建築作品”은 그 질에 있어서도 세계수준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建築設計를 직접담당하는 建築士協會에서 공모한 作品賞의 심사에서, 어느 심사위원은 우리의 건축가들이 『歐美의 건축가들이 후진으로 여겨오던 東洋建築의 단점까지를 탐구하여 혁신을 이루고있다...』고 말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는 『에민하고 선전적인 감각으로 선진구미, 기타 전세계기술의 모든과제를 우리것으로 정착시켜 자주적이면서도 새로운 건축을 창조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없이 기쁘기만 하고 참뜻으로서의 藝術的建築은 시대가 흘러도 늙지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建築

의 藝術性여부를 논할 필요는 없고, 우리의 건축수준이 어떤경지에 도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방법도 없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것은 도시에있는 모든 건축물이 다 이러한 수준의 것만은 아니고, 또 이러한 예술적 건축물들이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都市는 박물관, 무슨무슨 會館이나 記念館, 은행이나 대기업의 社屋, 호텔이나 高級住宅등의 “藝術的建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로 개발되는 대규모의 아파트團地는 천편일률적인 성냥갑으로 메꿔지고, 예술적 건축을 향유할 수 없는 대다수 보통사람들의 건축은 소외되어, 우리의 도시는 점점 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년전, 빠리의 쌀롱도톤느展에 建築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본일이 있다. 제목이 “20세기 빠리건축에의 敬意”였는데, 1890년부터 1980년까지 한시대를 대표할 만한 건축물들을 해설과 함께 實物寫眞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建築展이 주로 특수층을 위한 “藝術的作品”만을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이 전시회에 소개된 건축물의 대다수가 놀랍게도 庶民아파트였다.

1920年代에 몇몇 巨匠들의 영웅적인 建築理想을 계승하면서 발전되어온 現代建築은 불행히도 建築을 조금씩 都市에서 분리시켜 나갔다. 歷史와 傳統, 이웃과 大地를 원치 않는 現代建築은 아테네憲章에서 선언한대로 “길”을 없애 버렸고, 건물과 건물을 경쟁적 관계로 격리시켰다. 사람은 건축물의 주인이 아니라 추상화된 단순한 하나의 보편적 單位로 되어버렸고, 무엇이 좋고, 아름다우며, 자기에게 필요한 建築이 어떤것인지도 모르는 가축처럼 취급되고 말았다(Le Corbusier). 都市空間은 사라지고, 建築의 外部空間은 空虛(Void)한 것이 되어버려, 도시는 단순히 建築物의 集合場所에 불과하게 되어버렸다.

현대화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도시는 숨돌릴 틈도 없이 급격하게 변하여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몇몇 개개의 건축물이 세계적수준이라 해도 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도시는 어떤가. 어느 街區(block), 어느 街路를 보아도 無秩序

하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건축물의 스케일, 화씨의 구성, 색채, 높이, 지붕이나 창의 모양, 재료, 그 어느것에서도 視覺的 連續性이나, 有機的 關係를 느낄 수 없다. 우리의 傳統建築의 우수성을 말할때는, 듣는 사람이 경건한 마음까지 갖게될 정도로 열을 올리면서도 실제로 있어서는 서울에 남아있는 몇안되는 이들 빛나는 建築遺産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볼때, 西歐의 오래된 도시에서는 多樣한 變化속에서도 統一感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의 도시에서는 반대로 無秩序속에서도 단조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꼭 우리나라의 도시에만 특유한것은 아니고, 또 건축자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이에따라 도시도 너무 빨리 변하므로, 모든면에서 連續性이 깨어져 어떠한 基準을 설정할 수 없게 되었고(視覺的, 審美的 基準뿐만 아니라 價値基準까지도)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建築이 社會化되어 가고 있는데 반해 建築家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점점 축소되고 있다. 建築需要가 폭발적으로 증대되어 建設會社는 대형화 되었지만, 大量生産에 적합한 工法이나 部材도 별로 개발되어 응용되지 못하고, 또 대학에서의 建築教育의 내용만 보아도 '60년대와 조금도 다름이 없을뿐 아니라 실험대학이다. 교양과목이라 해서 전공과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최근, 뒤늦게나마 건축디자인을 보다큰 스케일로 확장시켜 都市속의 個別建築物이 아닌 都市建築으로 전환시켜보려는 시도로서 都市設計制度가 建築法에 신설되었다. 아직은 몇개의 都市設計地區가 지정된 정도일뿐 이므로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고 또 創造的 建築家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기대는 해 볼만하다. 都市속의 건축은 内部空間이나 그 表現樣式上的의 이즘(ism)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都市空間을 만들 수 있도록 “都市的”이어야 하고, 이러한 都市建築(urban architecture)은 서양의 中世都市나 朝鮮時代의 都市로 되돌아감을 뜻하지는 않는다.